



소촌농공단지의 유휴공간인 관리사무소(작은 사진)를 리모델링한 '소촌아트팩토리'가 24일 개관한다. 이 곳은 옛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컨테이너 27개를 재활용한 주민복합문화공간으로 라디오 스튜디오, 카페테리아, 전시장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삭막한 산업단지에 문화의 숨결 불어넣는다

광주문화재단 소촌농공단지 '소촌아트팩토리' 오늘 개관

컨테이너 27개 재활용 리모델링
병커극장·동아리 연습장·스튜디오
창작·전시·강연... 복합문화공간

24일 개관 기념 포럼·축하 공연
특별전·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

1980년대 광주시 광산구 소촌·운수동 일대에 조성된 소촌농공단지는 약 7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조립금속업체가 주종을 이루며 사람보다 트럭이 더 많이 보이는 삭막한 모습이다.

이곳에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며 지역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24일 오전 10시30분 '소촌아트팩토리' 개관식을 개최한다.

소촌농공단지의 유휴공간인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소촌아트팩토리'는 옛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주민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3월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 건축사사무소 에이엘엘·씨인크 공동작품을 선정, 10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총면적은 2770㎡로 본관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1729㎡)와 별관 아시아문화마루 컨테이너 27개(1041㎡)로 구성됐다.

본관 지하는 소촌병커극장과 동아리 연습공간, 1층은 라디오 스튜디오와 카페테리아, 사무공간 및 커뮤니티 관리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회의공간과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로 활용될 계획이다.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별관은 예술 창작 핵심공간이자 융·복합 창작, 전시, 대형강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러진다.

이날 개관식은 유정현 광주시장 등의 축하, 광주여성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빅밴싱어즈의 축하공연에 이어 소촌아트팩토리 자문위원 박흥근 건축사의 시설 안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관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소촌아트팩토리 개관기념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다.

1부는 박찬국 파라다이스 플래너가 '동대문 옥상낙원과 지역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장현우 담양 담빛예술창고 총괄기획감독이 '폐산업시설을 예술공간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는 박흥근 소촌아트팩토리 건축 큐레이터가 '소촌아트팩토리 공간 활용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외에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진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팀장,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가 참여한다.

오후 6시에는 본관 지하 병커극장에서 저녁을 먹으며 공연을 즐기는 '쇼셜다이닝 병커 콘서트(토크 콘서트)' 형식의 '두 남자의 음악 수다-대중가요 다시부르기'가 열린다. 송현상 바리톤과 최유준 음악평론가가 출연해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을 들려주며 현대사를 살펴본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 창작 대중가요로 알려진 이정숙의 '강남달'부터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 현인의 '군세아라 금순아', 이문세의 '소녀'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개관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별관 1층 융복합전시실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나의 살던 고향은-춘' 특별전이 열린다. 춘터, 춘농, 춘집 등의 그 '춘'을 주제로 잡았다. 이상나, 신장우, 박경현, 김형진, 장원석, 손만석, 성유진, 이혜리, 임현제 등 참여작가 9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도자기, 목공예,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회화, 판화 등 고향에 대한 추억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일반시민들이 출품한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고향에 대한 추억을 소재로 한 여러 장의 사진을 모아서 커다란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본관 1층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캘리그라피로 만드는 종이액자·책갈피, 공동 페인팅으로 완성하는 한국화·추상화, 이니셜을 조각해 만드는 비누공예 체험 등이 마련됐다. 문의 062-670-74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로얄발레단 '티핑 포인트 37.5' 무대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최수진씨 '프리즘'도 공연



광주로얄발레단이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마지막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2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번에 공연하는 작품은 로얄발레단이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연기상, 무대기술상을 수상한 '티핑 포인트 37.5'다.

실 새 없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한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으로 발레단 대표 박선희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이선우, 조희원씨 등이 출연한다. 지난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앞으로 발레단의 고정 레퍼토리로 꾸준히 공연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광주로얄발레단 컨템퍼러리 마스터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최

수진씨의 신작 '프리즘'도 공연된다.

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영상기법인 '프로젝트 맵핑'(대상물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한 작품으로 신비로운 무대가 특징이다. '빛의 도시' 광주에서 마치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색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최수진씨가 안무를 했으며 오윤환씨가 연출을 맡았다. 박민영, 최수진, 박관정, 김남훈, 김영재 등이 출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 공연으로 준비했다. 케이블 TV Mnet '댄싱9'의 초대 MVP인 하휘동의 파워풀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문의 010-3620-2633. /김미은기자 mekim@

서민식 개인전

추억 그리고 삶



'불태산 설경'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서민식 작가의 작품 '불태산 설경'은 겨울 불태산의 모습을 따뜻하게 전달한다.

하얀 털옷을 입은 듯 눈으로 덮힌 산은 어릴적 뒷마루에 앉아서 바라보던 고향의 뒷산을 떠올리게 한다.

남도의 풍광을 캔버스에 재현해 온 서 작가가 오는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에서 '추억 그리고 삶'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지역 고유의 정서

와 아름다움을 따뜻한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 약 30점을 선보인다. 특히 장승과 꽃을 나란히 배치한 '추억 그리고 삶 12-1'은 한국의 전통미를 추상적으로 재해석한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광주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서씨는 개인전 2회를 열었고 5개국 해외 스키지전 등 단체전 180회에 참가했다. 현재 한국미협과 광주미협, 광주화우회, 남부현대작가회, 광주일요화가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유준



송현상



소촌아트팩토리 1층에 들어선 라디오 스튜디오.



박 성 천 소 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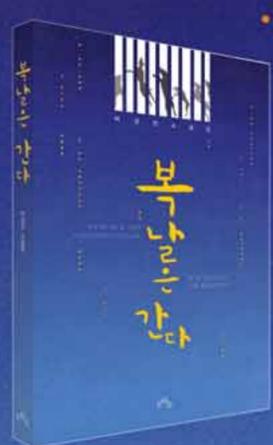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이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갇힌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희(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 문순태 소설가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나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리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